

정치 9단 '풍운의 정치사' 뒤편길로

■ 막내린 3김시대

DJ-YS-JP 3각 동지로...정적으로 민주화에 힘 보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서거로 50여 년 동안 한국 정치를 움직여온 3김 시대가 막을 내렸다.

DJ와 김영삼(YS) 전 대통령,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는 1960년대 이후 3김으로 불리며 한국 정치의 고비고비 마다 등장하며 역할을 했다. 이른바 '정치 9단'이라고 불린 3김은 권력을 위해 때론 동지로, 또 때로는 적으로 만나며 독특한 관계를 형성했다. 특히 이들은 호남·영남·충청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지역주의의 수혜자이자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DJ와 YS는 1967년 신민당 원내총무 경선에서 40대 기수론을 내걸고 첫 대결을 펼치며 평생의 경쟁 관계를 시작했다. 반면, JP는 1961년 처삼촌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쿠데타에 가담하면서 유신의 주역으로 정치 전면에 나섰다.

3김이 동시에 경쟁자로 등장한 것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3김은 경쟁을 펼치며 정치적 도약을 준비했지만 신군부의 등장으로 좌절을 맞았다. DJ는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까지 받았고 YS는 가택연금됐으며 JP는 재산을 압류당하고 정치활동이 금지된 것이다.

이들이 다시 경쟁의 전면에 나선 것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야권 후보단일화에 실패한 DJ와 YS는 나란히 13대 대선에 출마했으며 JP도 충청권을 지역 기반으로 삼고 대선에 나섰다. 이 같은 야권의 분열은 당시 여당 후보인 노태우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1990년 YS와 JP는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을 창당, 같은 배를 탔다. YS는 그 여세를 몰아 1992년 대선에서 여당 후보로 당선됐다. 외롭게 맞선 DJ는 대선패배를 인정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YS와 JP의 연합은 오래가지 못했다. JP는 1995년 YS 민주계의 퇴진 압력에 반발, 민주당을 탈당한 뒤 같은 해 3월 충청 기반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창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한국 현대정치의 큰 흐름을 주도했던 '3김시대'도 막을 내렸다. 1989년 3월 민주당 김영삼 총재(오른쪽), 평민당 김대중 총재(가운데), 공화당 김종필 총재가 여권의 중간평가 조기강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DJ도 1995년 지방선거 직후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

그리고 1997년 15대 대선에서 DJ와 JP가 연합, 정권을 창출해 냈다. DJ가 대권 4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JP는 국민의 정부 초대 총리가 된 것이다.

2002년 16대 대선으로 DJ가 은퇴하고 JP도 2004년 총선에서 자민련이 참패하자 정

계 은퇴를 선언해 3김 시대는 막이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3김은 2007년 17대 대선국면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보이지 않는 경쟁을 이어갔다. DJ는 범여권의 결집을 촉구했고, YS는 "잃어버린 10년을 끝내야 한다"며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JP는 한 발짝 더 나아가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지지를 천명했다.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DJ와 YS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북핵 사태 등을 거치면서 말년까지도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지만 DJ의 병세가 악화하자 YS는 병상을 찾아 화해를 선언했다.

그리고 DJ가 가장 먼저 이성을 떠나면서 영욕의 3김 시대는 한국정치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채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홍일 전 국회의원(오른쪽)이 18일 부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왼쪽)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喪主 홍일씨 파킨슨씨병 투병 충격적 외모... 조문객 안타까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이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으로 휠체어에 앉은 채 조문객들을 맞고 있다. 군사정권의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는 김 전 의원은 서거 당일 저녁 빈소에서 아버지의 영정에 꽃을 바치려고 했으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번에도 불편한 몸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의 병

세가 악화된 지난 9일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3차례 병원에 들렀다는 후문이다. 지난 96년 총선 때 목포에서 당선된 뒤 2004년까지 내리 3선을 한 홍일씨는 의정 활동을 할 때에도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에 의지하곤 했으나 넉넉한 풍채를 지니고 있었다. 최경환 비서관은 19일 브리핑에서 "5·18 내란 음모사건 때 중앙정보부가 '(DJ는) 빨갱이'라고

불러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몸은 던져 버리겠다'는 말을 많이 다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홍일씨 건강에 대해 "질대에 누워 생활해오다 최근에 좀 좋아져 앉아서 생활하지만 거의 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홍일씨는 그러나 임종 순간에는 "아버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홍일씨는 "아버지 용서하세요"라고 말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15대 때 목포·무안갑에서 금배지를 단 홍일씨는 재선의원 때인 2003년 '나라준금 로비' 수사 과정에서 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또 홍일과 홍일씨는 2002년 '이용호·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아버지의 재임기간 구속되는 비운을 겪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본원출신 실제 합격자 중 80%가 여흥빙학부터 공무원강좌 수강신청!! www.hanbitgosi.co.kr

중앙선관위 2009. 10. 27. 시험 연기... **수석합격자 배출!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7·9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중합반 하루 9시간 강의

강강 9:1

한빛소방직전문학원 **한빛고시학원** **한빛고시학원**

공주 북구청앞 234-0234

김영민 임학원